

2008년 달라지는 가족제도





2008년 달라지는 가족제도

자료 제공 법원행정처

➤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의 제정

「민법」 일부개정법률(2005. 3. 31. 법률 제7427호 공포)에 의한 호주제 폐지(2008. 1. 1.)에 맞춰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됨.

➤ 새로운 법률의 역사적 · 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후,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함.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민법상의 가족제도 변화

1.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등 폐지
2.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3.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6항)
4. 친양자입양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친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는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됨
 - 일반입양 제도와 달리 성과 본이 변경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1.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이 아닌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

2.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이며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가족관계등록비용의 관할 또는 재외국민의 각종 신고사건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3. 다양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노출이 문제됨
- 2008. 1. 1부터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함

4.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및 교부 사유 제한

-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음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해 제공하고,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을 적절히 조화함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입양 제도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 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함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 & A

1.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과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

- ▶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 사항에 관한 것(출생, 국적 관련, 친권, 한정재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에 관한 것이 기록됩니다. 다만,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관계 사항은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의 자세한 신분 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 2008년 1월 1일부터 본적이 없어지나요?

【설명】

- ▶ 가족들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호적과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 제도는 없어집니다.
- ▶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져 같은 배우자나 혈족이더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발급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설명】

- ▶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 요건이 현행보다 더욱 엄격해집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 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하게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4.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설명】

- ▶ 가족관계등록정보와 관련한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5.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설명】

- ▶ 본인이라도 증명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6. 혼인신고를 여행지에서도 할 수 있나요?

- ▶ 호적은 본적지 시·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 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7. 친양자입양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설명】

- ▶ 친양자입양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8.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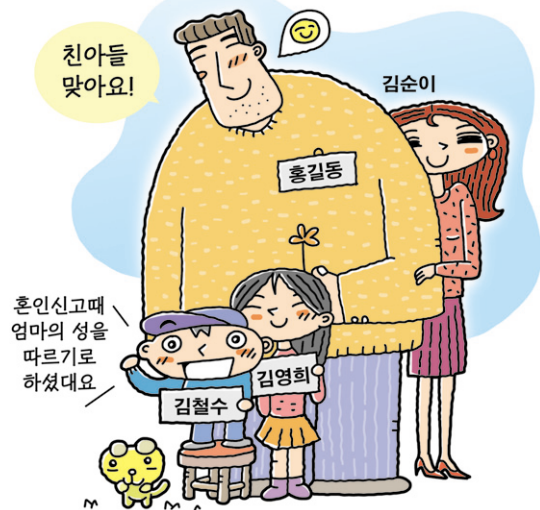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근거	민법 제886조부터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 2부터 8까지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 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9.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미리 정할 수 있나요?

【설명】

- ▶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태어날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 ▶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10. 모든 경우에 자녀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설명】

- ▶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781조제6항

11. 재혼한 여성의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설명】

- ▶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 ▶ 또,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그 성과 본이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908조의8

【견본 양식】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	---------------------------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일남(金一男)	1941년 02월 01일	410201-1555555	남	金海
모	이일녀(李一女)	1938년 03월 01일	380301-2333333	여	全州
양부	김양부(金養父)	1940년 04월 01일	400401-1333333	남	金海
양모	이양모(李養母)	1942년 04월 02일	420402-2222222	여	全州

배우자	박여인(朴女人)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여	密陽
-----	----------	---------------	----------------	---	----

자녀	정이군(鄭二君)	1973년 11월 20일	731120-1234566	남	全州
자녀	김일순(金一順)	1990년 01월 01일	900101-2777777	여	金海
자녀	김상준(金上樽)	1999년 05월 08일	990508-1325626	남	金海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견본 양식】

기 본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	---------------------------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변경	[변경일] 2008년 01월 03일 [전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번지의 3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234번지 [신고일] 1968년 02월 15일 [신고인] 부국적회복[국적회복허가일] 1975년 01월 02일
국적회복	[국적회복전국적] 미국 [신고일] 1975년 01월 03일 [신고인] 김일남 [송부일] 1975년 01월 03일 [송부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개명
개명	[개명허가일] 1976년 02월 02일 [허가법원] 서울가정법원 [신고일] 1976년 02월 05일 [신고인] 김일남 [개명전이름] 철수 [개명후이름] 본인

구분	상 세 내 용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 2008년 03월 01일 [정정일] 2008년 03월 01일 [정정전 주민등록번호]650101-1234578 [정정후 주민등록번호]650101-1234567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 지면 관계상 가족관계등록부의 5가지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견본 양식만을 실었습니다.

법원행정처 (☎ 02-3480-1389)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참고하세요.

